

실적 쏠쏠 맛본 삼성... 갤럭시S23 발열 잡고 자존심 지키까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어닝쇼크 내달 출시 갤럭시S23 시리즈 자신감 쉐이크업 '스냅드래곤8 2세대' 등 장착

플러블폰 흥행으로 지난해를 마감한 삼성전자의 모바일사업부(MX)도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하고 4분기 실적 하락의 쓴잔을 맛보게 됐다. 오는 2월 삼성 갤럭시 언팩(Samsung Galaxy Unpacked) 행사에서 발표될 갤럭시 S23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갤럭시 S23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을 씻어내고 한층 더 이목을 끄는 디자인으로 삼성전자의 '구원투수'가 될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한 '어닝 쇼크' 상태를 맞이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잠정 실적 설명자료'에 따르면 "MX도 '매크로 이슈' 지속에 따른 수요 약세로 스마트폰 판매와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익 감소 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매크로'는 'Macroeconomics'의 약자로 소비·투자·저축·국내총생산 등 거시 경제 집계량을 기준으로 경



갤럭시 S22 울트라

/삼성전자

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통상 '거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중국 '제로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고환율 등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이 힘든 거시 경제 상황이 지속됐고 지금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잠정실적 발표에서는 전체 실적 외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진 않아 삼성전자 MX 사업부 실적만을 알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MX 사업부의 실적 하락 폭도 상당할 것으로 보

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가 폰 출하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삼성전자 'MX-네트워크'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조8000억원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IBK투자증권도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MX 부문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1조716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4분기보다 각각 6.2%, 35.7% 줄어든 수치로 두 곳 모두 2조원 대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퀄컴

갤럭시 S23이 새해 첫 '구원투수'가 돼 삼성전자 상반기 실적향상에 도움을 줘야 하는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는 2월 중 출시할 갤럭시 S23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시장의 니즈, 트렌드를 보면 기존 '바(bar) 타입'이 주는 안정감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있고, 플러블이 주는 대화면과 컴팩트함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있다"며 향간에 떠돌던 '삼성전자의 바타입 스마트폰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했다.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갤럭시 S23이 발열을 잡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갤럭시S22 출시 직후 GOS 기능을 강제로 끄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원성을 샀던 터라 S23이 발열 이슈

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팁스터들이 올린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3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8 2세대', 8·12기가바이트(GB) 램, 128·256·512GB 내장메모리 등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스냅드래곤8 2세대는 전력 효율을 최대 40% 향상하는 등 발열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냅드래곤8 2세대를 만든 퀄컴 역시 "전작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시스템 최적화까지 이룬 혁신 모바일 AP칩"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AP칩이 완제품인 갤럭시 S23과 결합하면 어떤 성능을 보일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각으로 2월 1일에 열린 언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디자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아시아 출신 첫 디자이너로 일했던 이일환 디자이너를 MX사업부의 디자인인턴장 겸 부사장으로 영입해 디자인 혁신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S23부터 이 부사장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갤럭시S23 울트라가 옛지가 아닌 평면(플랫)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소비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디지털 플랫폼 앞세운 현대모비스 "미래 기술 한눈에"

디지털공간 통해 고객 접점 확대
홍보·영업 마케팅 방식 적극 활용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공간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미래 기술을 공유하는 등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경영 관리, 홍보, 영업 마케팅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은 오프라인보다 매력적이고 고객에게 좀더 밀착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도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최신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모빌리티 기



현대모비스 디지털 기술홍보관.

술 및 콘셉트를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행사에서 선보인 기술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디지털 기술 홍보관에는

최근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선보인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융합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현대모비스가 개발 중인 미래형 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 T O·엠비전 HI'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전기차 엠비전 TO는 차량 앞뒤 측면 4개 기둥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를 탑재했고, 4개 바퀴에 모두 조향기능이 달린 e-코너 모듈을 탑재해 제자리 회전이나 평행주행 등 기존 자동차가 구현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가능하다. 엠비전 HI는 휴식, 재충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미래 자율주행 콘셉트 캐빈이다.

앞서 2021서울모빌리티쇼와 CES 2022 등에서 회사가 소개한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엠비전POP'과 '엠비전2GO'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다.

엠비전POP은 차량에 스마트폰을 도킹해 모빌리티의 즐거움을 더한다는 '스마트-포빌리티(Smart-Phobility)' 개념을 탑재한 콘셉트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e-코너 모듈' 기술이 적용

돼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차량이 제 자리에서 360도 회전해 막다른 길에서도 반대방향으로 돌아 나올 수 있다. 차량이 좌우로 움직이는 '크랩 주행'도 가능해, 평행 주차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엠비전2GO의 경우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장착한 게 특징이다.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이자 배달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홍보관 내에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회원 전용 공간 '모비스 비즈니스 커넥트'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소개돼 있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센서류와 제동, 조향 시스템, 라이팅 그릴, 스위블 디스플레이, 루프 에어백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위 기술에 대한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 시그니처 올레드M, 올 CES '최고스타'

엔가젯 선정 홈시어터 부문 최고상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올 CES 2023 최고 스타로 인정받았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CES2023 공식 어워드인 엔가젯 선정 홈시어터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시그니처 올레드 M은 세계 최초로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해 4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영상을 선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엔가젯은 "TV와 약 10m 떨어진 곳에

서도 4K?120Hz의 고화질 영상과 소리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무선 전송 기술이 인상적"이라며 "이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 밖에 해외 유력 매체들도 찬사를 보냈다. 미국 탐스가이드는 "올해 CES에서 본 모든 제품 중 가장 멋지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극찬하며 최고 제품(Best in show)으로 선정했다. 씨넨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CES 2023 최고 TV 가운데 첫 번째로 꼽으며 "다른 모든 TV를 부끄럽게 만드는 혁신적인

초대형 무선 TV"라고 평가했다.

앞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CES 주관사인 소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로부터 내장기술(Embedded Technologies)과 영상디스플레이(Video Display)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LG 올레드 TV는 이번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총 12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CES 2023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및 혁신상 28개를 비롯해 엔가젯이 선정한 홈시어터 최고상과 유력 매체들이 선정한 어워드 등 현지시간 7일 기준 총 166개의 어워드를 받았다.

그 밖에도 생활가전에 대한 호평도 많았다. 리뷰닷컴은 LG 디오스 무드업 냉장고를 "업계 최초로 냉장고 도어에 LED를 적용해 제품의 색상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며 호평했다. LG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는 "무드 조명과 무선 충전 기술을 갖춘 화려한 색상의 테이블형 공기청정기로 주변 가구와도 조화롭다"고 극찬하며 각각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다.

디자인 전문매체 '안코디자인'은 LG 미니멀 디자인 가전에 대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무채색 계열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제품"이라고, 액자형 에어컨 신제품인 LG 아트쿨 갤러리는 "에어컨이 아닌 액자를 연상

시키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이라며 두 제품 모두 CES 2023 최고 제품(Best of CES 2023)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LG전자는 ▲ 노크온 디자인의 LG 인스타뷰 프렌치도어 냉장고 ▲ 문을 열지 않고도 음식의 조리 상태를 손쉽게 확인하는 LG 더블 전기오븐레인지 ▲ 에어수비드 기능 갖춘 LG 인스타뷰 싱크 오븐 ▲ CES 최고 혁신상에 빛나는 투명 올레드스크린 ▲ 커브드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 프리미엄 무선 스피커 LG 엑스붐 360 ▲ 전문가용 울트라 파인 올레드 프로 모니터 등도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다수의 유력 매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